인기몰이 나선 멜로영화

영화계 대목 중 하나인 추석을 앞두고 흥행 전쟁이 시작됐다. 예년에 비해 추석영화의 파워가 다소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올해는 감성을 자극하는 멜로영화가 눈길을 끈다. '내사랑 내곁에' 등 추석 연휴 기간에 상영될 영화들이 대부분 23일 미리 개봉, 추석 분위기를 선점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다.

김명민·조승우 등 연기파 출연
'내사랑…' '불꽃처럼…' 흥행 노려

음악영화 '페임'·가족영화 '펭귄'도 추석 앞두고 미리 출사표

▲멜로·음악영화 장르 다양

추석 흥행 왕좌를 노리는 작품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내 사랑 내 곁에'다. 최근 배역을 위해 20kg을 뺀 앙상한 모습을 드러내 화제가 됐던 연기파 배우 김명민과 '해운대'로 1천만 관객을 동원한 하지원이 투톱을 맡은 '내 사랑 내곁에'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한 남자와 그를 헌신적으로 보살피는 아내의 이야기를 그린 멜로영화다.

황정민·전도연이 주연을 맡았던 '너는 내 운명'으로 한국 멜로영화 흥행기록을 세운 박진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죽음'이 예견된 영화인터라 눈물샘을 자극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내사랑 내곁에'와 흥행을 놓고 겨룰 또 하나의 멜로물은 사극 '불꽃처럼 바람처럼'이다. 조선의 국모이자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명성황후 민자영과 그녀의 호위무사 무명과의 사랑을 그린 '불꽃처럼 바람처럼'은 야설록의 동명 무협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100억원이 투입된 대작이다.

시대극 답게 화려한 세트와 의상 등 볼거리가 풍부하며 이선희가 주제곡을 불러 또 다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주인공 명성황후 역은 단아한 매력이 돋보이는 수애가 맡았으며 그녀를 사랑하는 무사 무명 역으로는 연기파 배우 조승우가 출연한다. '와니와 준하', '분홍신'의 김용균 감독 작품이다.

▲김명민·조승우 등 연기파 배우 출연

눈물 대신 경쾌한 작품을 보고 싶다면 음악영화 '페임'을 기다리면 될 듯하다. 지난해 추석 시즌에 음악 영화 '맘마미아'가 흥행 대박을 터트렸던 지라 배급사의 기대가 높은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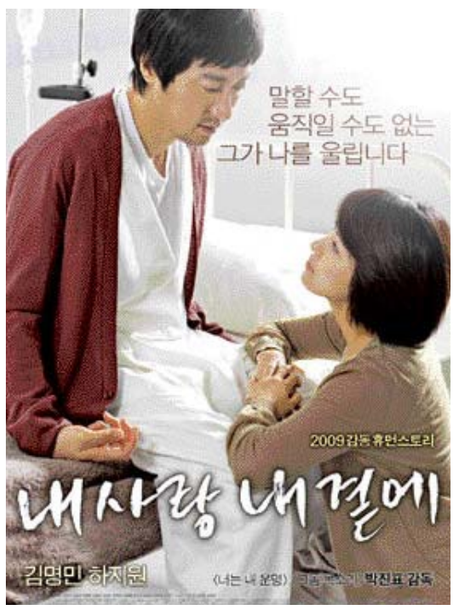
뉴욕예술학교를 배경으로 열정적인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페임'은 유명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원작으로 이미 1980년 알란 파커 감독이 영화로 만들어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다. '페임'의 음악은 당시 아카데미 음악상과 주제가상을 받으며 많은 인기를 모으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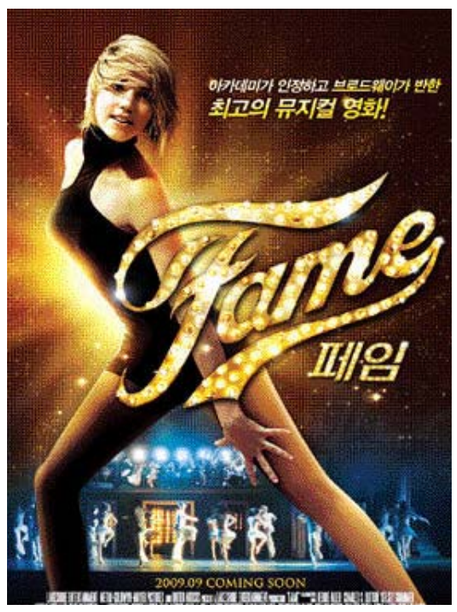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임순례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펭귄 가족'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작 지원한 소규모 영화로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담고 있다.

사교육 열풍 속에서 9살 초등학생을 키우는 부부, 직장 내 상사들로부터 '왕따'당하는 신입사원, 아내·자식과 생이별한 40대 기러기아빠, 황혼 이혼을 생각하는 노부부 등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가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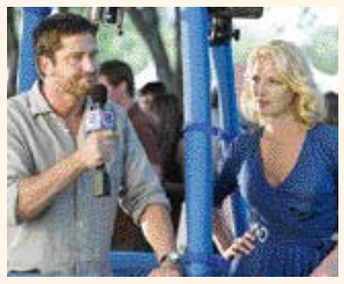
박인환·정혜선부터 문소리·박원상·손병호까지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영화 어글리 트루스



마초 9단 男-내숭 9단 女
사랑 그린 로맨틱 코미디
극중 힙합음악 분위기 더해

마초9단 남자와 내숭 9단 여자가 한 직장에 근무하면서 만들어가는 사랑이야기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다.

고품격 방송을 지향하는 PD 애비는 자신의 백마 탄 왕자를 기다리며 이상형을 찾지만 좀처럼 성과가 없다.

어느날 노골적인 입담으로 시청률 상한가를 달리고 있는 프로그램 '어글리 트루스'의 진행자 마이크가 자신의 프로그램에 출연, 방송계를 발칵 뒤집어 놓자 그녀는 정신이 없다.

애비는 앞집으로 이사온 완벽한 미남 의사 콜린에게 끌리고, 마이크는 애비의 내숭을 꼬잡으며 콜린을 사로잡기 위한 비법을 전수한다. 마이크의 도움을 받아 연애 작전을 펼치던 애비는 마이크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게 시작하고, 모든 여자에게 자신만만했던 마이크 역시 애비 앞에서는 허둥댄다.

영화 '300'의 제라드 버틀러가 마이크 역으로 출연하며 '그레이 아나토미'에 출연했던 캐서린 헤이글이 함께 호흡을 맞췄다.

로버트 루게틱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경쾌한 힙합음악이 극의 분위기를 살린다.

〈18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